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1년 하반기 수출전망' (2011.6.30)

[목차]

요약.....	1
I. 하반기 수출전망 개요.....	2
II. 지역별 수출전망.....	5
III. 품목별 수출전망.....	18

작성 : 통상조사팀 최원석 과장(jmorning@kotra.or.kr)

감수 : 통상조사처 한선희 처장(shan@kotra.or.kr)

요 약

□ 하반기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2,882억불 전망

- 연간 수출은 '10년 대비 21.1% 증가한 5,649억불로 무역규모 1조불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전자 부품·소재류 시황 불안, 중국의 긴축기조, 상반기 선박류 수출 급증으로 수출 증가율은 상반기 대비 하락

<우리나라 수출 추이 및 전망>

(단위 : 억불, %)

년 도	2009	2010	2011		
			상반기	하반기	연간
금액(증감률)	3,635(△13.9)	4,664(28.3)	2,767 (25.0)	2,882 (17.6)	5,649 (21.1)

주) 증감률은 전년대비 / 자료원 : KOTRA 해외 KBC (바이어, 주재상사 등 1,406개 정보원 의견 종합)

□ 對선진국, 신흥국 수출 고른 호조 전망

- 미국의 자동차 시장 회복 전망 및 제조업 회복, 부품소재 및 복구 관련 품목 등의 대일 수출 호조 등으로 대선진국 수출 호조 전망
- 단, 유럽은 남유럽 위기에 따른 소비위축과 재정부담으로 불안요인 상존
-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은 중산층 규모 및 구매력 확대와 인프라 투자 증가, 현지 한국기업 조업 호조로 높은 증가세 유지 전망
- 중국은 고물가에 따른 긴축재정, 소비위축, 기업 수익성 악화로 10% 대 증가세에 머물 전망

□ 자동차·석유 연관 제품 호조, 전자 부품소재 및 완제품 다소 부진

- 북미 자동차 수요 회복 및 한국차의 성공적 再포지셔닝, 해외 진출 한국 메이커의 투자 확대 등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높은 증가세 지속 전망
-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은 신흥국 수요 확대 및 가격 상승, 철강은 글로벌 자동차 생산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유리한 여건 지속
- 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 부품소재류는 시황 부진으로, 가전 및 컴퓨터는 선진국 수요 부진으로 보합 내지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I. 하반기 수출전망 개요

□ 하반기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2,882억불 전망

- 연간 수출은 '10년 대비 21.1% 증가한 5,649억불로 무역규모 1조불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10년간 수입/수출 비중은 88~103%(평균 94%) 수준

- 전자 부품·소재류 시황 불안, 중국의 긴축기조, 상반기 선박류 수출 급증으로 수출 증가율은 상반기 대비 하락

* 1-5월 선박류(MTI746) 수출은 전년 대비 52.5% 증가한 278억불로 전체수출의 12.2%를 차지하며, 동기간 수출증가에 대한 기여율은 20.0%임

<우리나라 수출 추이 및 전망>

(단위 : 억불, %)

년 도	2009	2010	2011		
			상반기	하반기	연간
금액(증감률)	3,635(△13.9)	4,664(28.3)	2,767 (25.0)	2,882 (17.6)	5,649 (21.1)

주) 증감률은 전년대비

자료원 : KOTRA 해외 KBC (바이어, 주재상사 등 1,406개 정보원 의견 종합)

□ 對선진국, 신흥국 수출 고른 호조 전망

- 미국의 자동차 시장 회복 전망 및 제조업 회복, 부품소재 및 복구 관련 품목 등의 대일 수출 호조 등으로 대선진국 수출 호조 전망
 - 단, 유럽은 남유럽 위기에 따른 소비위축과 재정부담으로 불안요인 상존
-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은 중산층 규모 및 구매력 확대와 인프라 투자 증가, 현지 한국기업 조업 호조로 높은 증가세 유지 전망
 - 중국은 고물가에 따른 긴축재정, 소비위축, 기업 수익성 악화로 10% 대 증가세에 머물 전망

< 지역별 하반기 및 연간 수출 전망 >

(단위 : 억불)

지역	210			2011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총계	2,213	2,451	4,664	2,767	25.0	2,882	17.6	5,649	21.1
중화	747	824	1,572	891	19.3	945	14.6	1,836	16.8
동남아대양주	317	349	666	420	32.4	433	24.4	854	28.2
유럽	296	315	611	361	22.1	359	14.1	720	18.0
북미	256	284	539	303	18.4	325	14.6	628	16.4
중동	132	150	282	163	23.0	177	17.9	339	20.3
일본	128	154	282	179	40.0	182	18.2	361	28.1
중미	100	102	202	113	13.4	115	13.0	229	13.2
남미	76	84	160	104	38.0	106	25.0	210	31.1
서남아	65	77	141	78	20.4	96	25.3	174	23.1
CIS	44	66	111	71	61.0	88	33.4	160	44.5
아프리카	52	46	98	83	60.0	56	22.5	139	42.5

주1)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주2) 북아프리카지역은 '중동'에 포함

자료원 : KOTRA 해외 KBC (바이어, 주재상사 등 1,406개 정보원 의견 종합)

□ 자동차·석유 연관 제품 호조, 전자 부품소재 및 완제품 다소 부진

- 북미 자동차 수요 회복 및 한국차의 성공적 再포지셔닝, 해외 진출 한국 메이커의 투자 확대 등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높은 증가세 지속 전망
-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은 신흥국 수요 확대 및 가격 상승, 철강은 글로벌 자동차 생산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유리한 여건 지속
- 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 부품소재류는 시황 부진으로, 가전 및 컴퓨터는 선진국 수요 부진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주요 품목별 2011년 하반기 수출 전망>

품목	전망	전망 근거
자동차	대폭 증가	북미 자동차 수요가 하반기 회복세가 예견되는 가운데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에게 한국차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했으며,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 중산층이 급속히 확대되는 신흥시장에서는 공급부족이 지속, 하반기에도 견조한 수출 증가세 전망
자동차부품	대폭 증가	한국산 자동차 판매 증가에 따른 A/S 부품수요 확대, 미국, 유럽, 러시아 등 현지 진출 한국 자동차 메이커의 생산 및 투자 확대, 일본 부품업체의 공급 애로 등으로 호조세 지속 전망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패널	소폭 증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모바일 프로세서, 대형 패널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시황 개선이 불확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은 보합세에 그칠 전망
철강	대폭 증가	일본을 제외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투자 증가세, 중국의 1000만호 서민주택건설 프로젝트 전면 착공, 인도 및 ASEAN 국가의 인프라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지속 호조 전망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제품	대폭 증가	유가 상승에 따른 제품 단가 상승, 신흥국발 수요 증대, 일본 정유소 및 석화 제조사들의 조업 애로에 따른 반사효과 등으로 높은 증가세 시현 전망
무선통신기기	소폭 증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상승 속에 하반기 다양한 신제품 출시, 일본 시장 공략 본격화가 호재이나 중국 내 현지생산 확대,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 로컬 브랜드 강세 등은 불안요인
컴퓨터 가전	현상 유지	선진국의 소비 회복 지연으로 TV, 모니터 등 완제품 수요 회복도 더딘 가운데 해외 생산 비중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칠 전망
기계류	대폭 증가	선진국 제조업 회복세에 따른 기계 설비 투자 확대, 신흥국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건설 중장비 수요 증가,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정밀기계 분야에서의 최근 강세에 힘입어 호조 예상

주) 대폭증가(10% 초과) / 소폭증가(3~10%) / 현상유지(0~3%) /

소폭감소(0~-10%) / 대폭감소(-10% 미만)

자료원 : KOTRA 해외 KBC (바이어, 주재상사 등 1,406개 정보원 의견 종합)

II.

지역별 수출 전망

가. 중화권 [14.6% 증가]

□ (중국) 하반기 경제 성장 둔화 예상

- 1분기 성장률은 9.7%였으나 2분기 이후 점차 둔화, 연간 9.3% 전망
- '10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통화긴축정책이 올 상반기에도 강도 높게 추진되면서 기업 자금난과 공업 생산 둔화가 나타남

□ (중국) 고물가 및 긴축 정책으로 전반적 경제 활동 위축 전망

- 고물가 압력으로 긴축 정책 지속
 - 5월 소비자물가가 5.5% 상승, 34개월 內 최고치 기록
 -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 : 4.9%(1월)→4.9%(2월)→5.4%(3월)→ 5.3%(4월), 5.5%(5월)
 - 고물가를 잡기위해 금년에만 총 여섯 차례의 기준율 인상 및 두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했으며 하반기에도 통화 긴축 지속 전망
 - * 6.20일부터 대형은행 기준율이 21.5%로 사상 최고 수준 기록
- 통화긴축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올해 중국의 공업 부가치총액 증가율을 '10년보다 4.7%p 낮은 11%로 예측
 - 12.5 계획에 따른 7대 전략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 대규모 민·관 투자가 예상되나, 對韓 수입수요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기간 소요 전망

<중국의 7대 신흥전략 산업 분야>

에너지절약·환경보호	고효율에너지절약, 선진환경보호기술, 리사이클링 시스템
신정보기술	RFID 등 사물네트워크, 첨단 소프트웨어, 고성능 집적회로
바이오	신약개발, 바이오의료산업, 녹색농업, 해양생물연구
첨단장비제조	민간항공, 해양공정장비, 첨단지능장비
신에너지	원자력에너지,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신소재	고성능막, 특수유리, 기능성세라믹 등 신형소재, 특수강
신에너지 자동차	동력배터리, 엔진 및 전자제어핵심기술, 하이브리드 자동차

- 1~5월 사회소비품 매출총액은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6%p 하락
 - 물가 상승에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구매력 약화가 주요 원인
 - *홍콩 등지로의 해외쇼핑 품목이 사치품에서 식품, 가재도구 등 생필품으로 확대
- 1~5월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7.7%p, 수입은 28.1%p 감소
 - 위안화 절상, 생산원가 상승, 유럽경제 불안에 따른 수출수요 감소 등으로 수출입 둔화세 지속 전망

□ (중국) 인력난, 전력난, 자연재해 등 추가적 불안요소

- '10년 중국 30개 성시의 최저임금표준 상향조정으로 평균 인상률이 22.8%에 달하는 등 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
- 동부 연해지역뿐만 아니라 저장, 장시, 후난, 충칭, 산시 등 중서부 지역에도 일찌감치 전력난이 나타나 일부 성시는 공업용 전기 사용 제한 및 전기 가격 인상 실시
- 4~5월 창장 일대에서 대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인상됐으며 6월 저장성, 장시성 홍수 발생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 가능성 증폭

□ (대만·홍콩) 높은 對中 의존도로 수출 증가율 동반 둔화 전망

- 상반기 對 대만·홍콩 수출 증가는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류 수출 급증에 기인
 - 이들 품목의 수출 실적은 국제 상황(반도체, 석유제품) 및 인수·인도 스케줄(선박)에 크게 좌우
 - * 석유제품(MTI133)이 금년 1-5월 對 대만 및 홍콩 수출 증가에 미친 기여도¹⁾는 각각 25.8%, 30.4%로 나타남
- 중국 내륙내수시장 확대, 중-대만 ECFA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관계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하반기 성장 둔화가 예고됨에 따라, 한국의 對 대만·홍콩 수출 증가세도 둔화될 전망

1) {(해당국으로의 석유제품 수출 증가분)/(해당국으로의 전체 수출 증가분)}*100

나. 동남아·대양주 [24.4% 증가]

□ 공공 건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

- (싱가포르) 정부의 공공주택 건설 촉진 등으로 공공 프로젝트가 2011년 초부터 다시 활성화
- (인니) 제 2차 전력 10,000MW 확충 프로젝트 본격화 등 발전 분야와 플랜테이션, 도로, 공항 건설 투자 확대 전망
- (태국) 7.9일 총선 종료 후 지체되었던 대형 국책프로젝트 본격 착수 전망

□ 제조업 호조 및 현지 진출 한국기업 투자 증대

- (베트남) 원부자재 자체 생산 능력 부족과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조업 활황, 베-中 영토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등으로 호조 전망
- (인니) 농업, 가스 중심 산업구조를 제조업 육성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가운데, 포스코의 60억 달러 제철소, 한국타이어의 12억불 타이어공장, 쿠웨이트의 80억불 정제시설 투자 등으로 제조업 기반 확대

□ 소비자 구매력 증가와 한국산 내구 소비재 인지도 상승

- (인니) 내수시장 성장 지표인 자동차 및 오토바이 판매 지속 호조 전망
- (말련)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신규 모델의 경우 주문 후 2개월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음
- 휴대폰 신규가입 및 교체수요가 증가, 한류의 확산과 함께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국제품 수요 급증

□ 아시아 지역 석유제품 수요 증가

- (싱가포르) 아시아 경제성장 및 석유제품 수요 증가로 세계 석유제품 거래·물류 중심지인 싱가포르를 통한 공급 확대 전망
-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경유, 휘발유, 항공유 등 공급부족 지속

다. 서남아 [25.3% 증가]

□ (인도) 늘어난 중산층, 新소비를 리드

- 국가응용경제연구소(NCAER)는 인도 중산층 인구가 현재의 1.6억 명에서 2015년 2.7억 명으로 폭발적인 증가 전망
 - 소매유통시장 연평균 40~50% 성장 및 유통분야 규제 완화
 - 2010년 자동차 261만대 판매로 연간 30% 성장 기록
 - * 단, 고유가와 할부 이자 상승으로 하반기 자동차시장 성장세는 둔화 전망
- 고용확대 및 임금 상승세로 구매력 증가
 - 경제위기 회복 및 견조한 경제 성장세로 인도 및 다국적 기업이 고용확대로 전환하고 있으며,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12~15%에 달함

□ (인도) 인프라 시장의 활황

- 델리-뭍바이 산업대회랑 프로젝트(DMIC) 등 인프라 구축에 향후 5년간 1조불 투자 예정
 - 발전, 도로, 항만, 도시화 관련 다수의 대규모 프로젝트 동시 발주

□ (인도) 한-인도 CEPA의 효과 가시화 예상

- 2010년에는 일부 품목 외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으나, 금년 1월 2회차 감축 이후 수혜 범위 확대로 효과 제고가 전망되며 우리 업계의 관심 상승도 진출 확대 요인이 되고 있음

□ (인도) 시장 전반에 걸친 산업재 수요 풍부

- 제조업 투자 확대로 기계류 수요 꾸준히 증가
- 3G 통신망 본격 서비스 개시 등 통신 인프라 개선에 따른 통신장비 수요 증가
- 자동차산업, 건설업의 성장에 따라 철강판 수요 증가

라. 유럽 [14.1% 증가]

□ 산업투자 호조로 선진국 경제 예상 밖 호조

- IMF는 6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2011년 유로존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2.0%로 상향조정했으며, 산업투자 증가를 주원인으로 제시
- (독일) 금융위기 이후 지연되어 왔던 독일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07년의 경기 호황기 수준을 회복
 - 독일 산업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특히 자동차, 기계, 전자 분야에 투자 활황
- (영국) 제조업은 '10년 1분기 이후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2년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 재개발 및 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른 건설 특수 발생
- (네덜란드) 1분기 GDP가 최근 3년 내 최고치인 3.2% 성장을 기록했으며 건설부문 및 기업의 기계류, 차량, 컴퓨터 등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

□ 신흥성장국 생산활동 호조

- 역내 선진국 경기 호전에 힘입어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제조기지의 수출 호조 - 투자 증가의 선순환 확대
-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수요 대폭 증가

□ 7월 한 - EU FTA 잠정발효 효과 기대

-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섬유, 석유화학 등 수혜품목, 7월 1일 부 FTA 잠정 발효에 따라 관세 철폐, 인지도 향상 등으로 수출 확대 전망
- 단, 자동차 등 완제품의 경우 현지 생산 비중 확대로 수혜 효과가 제한적일 전망

□ 남유럽발 경제 위기 요인 상존

- 재정위기에 따른 그리스에 대한 유럽의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가시화되면서, 각 EU 국가 재정 부담 가중 전망

- 이에 따른 공공지출 억제, 금리 인상 등 긴축기조가 확대될 경우 소비 위축 등으로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소비시장 회복 지연

- 한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은 확대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남유럽 경제 위기, 일본 대지진 등의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 자동차, 가전 등 내구소비재 전반에 대한 지출은 더딘 회복세를 보임
 - * 1-5월 EU 신차판매(승용차)대수는 전년 동기대비 0.8% 감소한 반면 현대, 기아차는 1.0% 증가
- 선진국 평면 TV 보급률 50% 초과에 따른 신규 구매 둔화, 디지털 기기의 융복합화에 따른 PC, TV 등 구매 감소 등도 부진 요인
 - * DisplaySearch는 전세계 평면 TV 판매증가율이 '10년 30%에서 '11년 12%로 감소 전망

마. 북미 [14.6% 증가]

□ (미국) 경기회복세 둔화 우려 확산

- 최근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소비, 생산,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을 보이면서 경기회복 모멘텀 약화에 대한 우려 확산

<미국 개인소비(실질) 증가율 추이>

분기	'10.1분기	'10.2분기	'10.3분기	'10.4분기	'11.1분기	'11. 4월
증가율(%)	1.9	2.2	2.4	4.0	2.2	0.1

주 : 전기대비 연율 기준 / 자료원 :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분기	'10.1분기	'10.2분기	'10.3분기	'10.4분기	'11.1분기	'11.4월
증가율(%)	8.1	7.1	6.7	3.1	4.6	0.0

주 : 전기대비 연율 기준 / 자료원 :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

- 그러나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치더라도 최근의 부진은 일본 지진피해에 따른 공급차질 등 일시적 요인이 큰 만큼 하반기에는 다시 완만한 회복세 예상
 - 향후 미국경제는 '上底下高'의 경기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다만,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고 주택시장 부진,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위협요인도 존재하고 있어 경기하방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

□ (미국) 기업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출 증가 기대

- 대출요건 완화, 신흥시장 수요증가, 향후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향후 미국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미뤘던 기업들의 수요가 경기회복과 맞물려 분출될 경우 큰 폭의 설비투자 증가 기대

<미국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분기	'10.1분기	'10.2분기	'10.3분기	'10.4분기	'11.1분기
증가율(%)	20.4	24.8	15.4	7.7	11.6

주 : 전기대비 연율 기준 / 자료원 :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

- 미국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하반기에 기계류, 철강 등 자본재 對美 수출 증가세 지속 예상

□ (미국) 자동차시장 회복에 따른 자동차 및 부품 수요 회복 예상

- 미국 자동차 시장은 최근 유가 급등과 일본 지진피해에 따른 공급차질로 판매가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회복 전망
- 아울러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 증가, 현대기아차 현지생산 증가 등으로 국산 자동차 및 부품, 철강의 수출 증가세 지속 예상
 - 단, 소나타, 소렌토 등 인기차종의 현지 생산은 완성차 수출 감소 요인

□ 휴대폰, 평판디스플레이 등 IT 품목 수요 증가

- 스마트폰 중심의 휴대폰 신제품 출시, TV 교체 수요 및 태블릿 PC 등 터치스크린 제품판매 증가에 따른 디스플레이 패널 수요도 증가 예상
 - 단, 디스플레이 가격 회복 지연과 휴대폰 등의 해외생산 비중 확대로 수출금액 증가는 소폭에 그칠 전망

바. 일본 [18.2% 증가]

□ 하반기 재건 사업이 경제성장 지탱 전망

- 대지진 복구비용 4조엔을 포함하는 제1차 보정예산 조성, 3분기부터 집행됨에 따라 공공투자 확대 예상
- 3분기에는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대지진 이전의 공급능력을 회복할 전망
 - 4분기 이후 자동차 생산이 정상화 및 전력 부족 해소 기대
- 가계 소비심리 위축 및 자숙 분위기도 완화, 개인소비가 증가하는 한편 기업 설비투자도 원자재 부족 해소로 회복 예상

□ 대지진 영향에 따른 반사효과로 대일 수출 증가 예상

- 대지진과 원전사고 영향으로 부품소재, 식품 등 수출 증가
 - 식품류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 상반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한국식품 수요가 하반기에도 호조를 보일 전망
 - 주택, 도로 등 인프라 복구가 본격화될 예정이나 건축 관련 자재 공급 부족이 예상, 한국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
 -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반기에도 부품 공급 부족이 예상, 한국 기업에 기회로 작용

□ 한국 소비재 브랜드 이미지 제고

- 대기업 제품의 일본 진출 본격화
 - 일본 브랜드가 지배하던 전자기기 분야에서 한국 브랜드가 점유율을 높여가는 한편 한류 드라마나 K-POP 등 문화 콘텐츠 인기도 다시 높아지고 있음
 - * '10년 10월 출시한 GALAXY S는 한때 품귀현상을 빚었으며 6월 출시되는 GALAXY SII에 대한 예약 쇄도
 - * LG전자 스마트폰 Optimas Bright 6월 출시

사. 중동* [17.9% 증가] * 북아프리카 국가 포함

□ 국제유가상승으로 주요국 재정 및 구매력 상승

- 주요 산유국은 연초 예산안에서 유가를 배럴당 \$70선으로 예측했으나 역내 시위 사태 등으로 연평균 \$100 이상의 강세를 유지함에 따라 재정여력 확대와 정부지출 증대로 이어짐
 - * 사우디, 역대 최대 예산인 1,547억불 편성하였으나 유가 상승으로 국가재정이 250억불 이상 확대
- 역내 시위 사태 파급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안정 차원의 지출도 확대되는 추세임
 - * 사우디, 시위사태를 전후하여 1,300억불 규모의 민생안정지원책 발표

□ 역내 주력 수출 대상국 경기 호조

- UAE, 사우디 등 한국의 중동 최대 수출 대상국의 경우 시위 사태가 오히려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중동 재수출 허브인 UAE는 시위 사태에 따른 수입 물량 집중으로 1분기 수출이 15.6% 증가하였으며 증가세 유지 전망
 - 역내·외 자본도 정치경제 여건이 보다 안정적인 UAE, 사우디 등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 대형 프로젝트 연계 수요 지속 전망

- 프로젝트 발주는 국가별로 부침이 있을 것이나 고유가를 배경으로 전반적 호조가 예상됨
 - '08년 이후 우리기업의 對 UAE 프로젝트 수주가 크게 늘어나 철강제품, 건설 중장비, 밸브 등 관련 기자재 수출 호조 전망
 - * 한국기업은 사우디에서 '10년에 이어 11년에도 사상최대 프로젝트 수주실적 갱신 예상
 - * UAE의 금년 프로젝트 발주규모는 전년비 50% 감소 전망
- 또한 주요 산유국의 산업 다변화 정책을 전개함에 따라 발전, 제조 시설, 중소형 플랜트 등에 신규 발주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됨

□ 내수소비 시장의 성장세와 한국제품 이미지 향상

-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수요 확대로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성 소비재의 수출이 호조를 보임
- 한국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한국 기업은 대규모 홍보 활동을 강화

아. 아프리카* [22.5% 증가] *Sub-Sahara 지역만 포함

□ 주요 수출대상국의 고성장세 회복

- 금융위기의 여파를 벗어나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의 경제성장이 본궤도에 다시 오른 것으로 평가
- (남아공) 금리가 최근 30년 내 최저 수준을 보임(5.5%)에 따라 민간소비 확대되고, 자동차 및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2011년 3.7% 성장 전망
- (나이지리아) 유가 상승에 따른 재정확대, 통신 등 서비스 및 인프라 건설 부문 급성장으로 연평균 6.5% 성장 지속 전망

□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증가

- (남아공) 남아공은 여타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인프라 수준이 현격히 높지만, 최근 20-30년간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노후, 이를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 발주 증가
- 여객용 철도차량 현대화 프로젝트, 송배전 설비 개선 프로젝트, 발전소 보수 프로젝트 등
 - * 중장기 전력수급 계획(IRP 2010) 확정 시행에 따른 전력산업 전반 수요 급증
- (나이지리아) 석유, 가스 부문 플랜트 프로젝트가 발주가 활발하며 정부의 '전력산업 로드맵'에 따른 발전, 송·배전 프로젝트도 활성화 전망

□ 한국산 내구소비재의 지속적인 점유율 확대 기대

- (남아공)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13%로 높아졌으며 중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 예상
- (나이지리아) 재정지출 확대, 오일 머니의 시중 유입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상대적 고가의 전자제품, 가전제품 판매 급신장

자. 중미 [13.0% 증가]

□ 미국 및 멕시코 경기 회복

- 미국 경기회복으로 멕시코의 對美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제조업 성장
- 멕시코 경기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대 멕시코 수출은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아연도강판 등 부품소재류가 절대적으로,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의 수혜가 예상됨

□ (멕시코)자동차 산업 호황

- '11.1~5월 중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4.6%가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17.1%, 내수는 10.8% 증가
- 자동차 산업 호황에 따라 철강재, 부품, 합성수지 등의 원부자재 수출이 꾸준히 확대될 전망임
* POSCO의 현지 자동차 강판생산용 CGL 공장은 3억불의 신규 투자로 생산량을 기존 40만 톤에서 90만 톤으로 늘릴 계획임

□ (멕시코) 선박류 수출 확대 기대

- 한국의 대 멕시코 선박 및 부품 수출은 미미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의 半잠수식석유시추선 인도로 역대 최고치인 6.5억불 기록
- 멕시코의 원유 생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석유 탐사와 생산증대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관련 선박류 진출 기회 확대

차. 남미 [25.0% 증가]

□ 중산층 확대로 내구 소비재 수요 증가

- (브라질) '05년 이후 지속된 고성장 및 외국인 투자확대에 따른 고용창출 등의 영향으로 중산층 규모와 구매력 확대
 - 과거 가격중심 구매 패턴에서 품질과 디자인 중심으로 이동
- (칠레) '10년 소비시장 호조가 지진 이후 소비재 교체 및 건설 프로젝트 증가, 12년만의 월드컵 참가 등에 단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으나 금년은 소비자 구매력 증가 및 신용 시장 확대가 주요인

□ 대형 인프라 투자확대로 관련 장비 수요 확대

- (브라질) 경제성장 및 산업수요 증가에 따라 에너지, 인프라분야에 대한 대형 투자 추진 활발
- (칠레) 구리 등 광산업이 국제 수요 회복, 가격 상승에 힘입어 호기를 맞고 있어 관련 인프라 투자도 확대될 전망

□ 브라질 건설시장 호황 및 월드컵/올림픽 특수

- 경제 호황 및 2014년 월드컵, 2016년 월드컵 개최에 따라 호텔, 주택, 오피스 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건축자재 및 관련 장비 수요 확대 전망
 - 서민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09년~'10년 중 100만호 서민주택 건설을 추진했으며, '11년부터 200만호 건설 프로젝트 추진 중

□ 對브라질 투자확대로 관련 장비 및 부품 수요 확대

- 자원 및 가전분야에 집중되었던 우리나라의 對브라질 투자가 자동차, 자동차부품, 중장비, 섬유화학, 반도체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어 관련분야 장비 및 부품 수출 확대 추세

□ 한국제품 인지도 향상

- G20 회의 개최, 월드컵 및 올림픽 개최,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 대기업의 현지 생산 및 홍보 강화의 효과 확대
 - 미국, EU, 일본과 대등한 고급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산

카. CIS [33.4% 증가]

□ 고유가에 힘입은 경제성장 회복

- 유가 상승에 따른 오일머니 유입과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10년 GDP는 4.0%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1년에는 4.2~4.8% 성장이 예상됨

□ 바이어 신규 오더 회복세 지속

- CIS 지역은 다른 신흥국에 비해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회복이 지연되었으나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2010년부터 가시화
 - 금융권의 對기업 대출 여건도 대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
- 다수 바이어가 재고 소진에 따라 본격적으로 신규 오더를 늘리고 취급 품목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대규모 국제행사에 따른 건설 및 프로젝트 수요 다대

- 2012년 APEC(블라디보스톡), 2013년 유니버시아드(카잔) 2014년 동계올림픽(소치), 2018년 월드컵 등 대형 국제 행사 유치로 건설 및 프로젝트 투자 확대와 관련 수입 수요의 대폭 확대가 기대됨

□ 자동차 및 부품 수요 호조

- 경기회복에 따른 신차 수요 확대
 - 1~5월 러시아내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60% 증가
- 현지 한국 자동차 공장 조업에 따른 부품 수요 확대
 - '10년 9월 완공된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은 1분기 133%의 가동률을 보였으며 연간 생산량을 현재 연간 15만대에서 20만대로 확대할 계획임

Ⅲ.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

가. 자동차 (대폭 증가)

- 북미 자동차 수요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에게 한국차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
 - (미국) 현대·기아차는 세련된 디자인, 연비 향상,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가격 대비 가치가 높은 차로 인식
 - * 단, 소나타, 소렌토 등 인기 모델을 모두 현지에서 생산, 수출증가 제약요인으로 작용
-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 중산층이 급속히 확대되는 신흥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이 지속, 하반기에도 견조한 수출 증가세 전망
 - (CIS) 소비자 금융 확대로 신규 구매수요가 점차 구매로 실현
 - (브라질) 중산층 확대 및 현지화 강세로 수요 증가

나. 자동차부품 (대폭 증가)

- 한국산 자동차 판매 증가에 따른 A/S 부품수요 확대, 미국, 유럽, 러시아 등 현지 진출 한국 자동차 메이커의 생산 및 투자 확대, 일본 부품업체의 공급 애로 등으로 호조세 지속 전망
 - (미국) 자동차 판매시장 회복세 지속(전년대비 11% 증가)과 Big3의 투자 확대에 따른 납품기회 증가, 현대 자동차 증산 및 기아자동차 설비 증설에 따른 CKD(조립용 반제품) 수출 급증 기대
 - (중국) 올해 자동차 시장이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산 부품 조달 애로로 인한 대체수요 등으로 지속 호조 전망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의 본격 가동 및 판매 호조, 노후한 차량 증가에 따른 A/S 부품 수요 확대에 따라 호조 예상

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소폭 증가)

- 낸드 플래시 메모리, 모바일 프로세서, 대형 패널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시황 개선이 불확실하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은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반도체) 모바일기기용 시스템 반도체 수요 증가, 일본 반도체 업체의 공급 애로 등은 호재로 작용
- (디스플레이 패널) 선진국 평면 TV 수요의 완만한 증가, 아이패드 등 디지털 융복합기기 확산에 따른 TV류 수요 증가 제약 등도 부진 요인으로 작용
- 중국 內 LG 8세대 LCD 공장 설립 추진 등 해외생산 확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의 감소요인

라. 철강 (대폭 증가)

- 일본을 제외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투자 증가세, 중국의 1000만호 서민주택건설 프로젝트 전면 착공, 인도 및 ASEAN 국가의 인프라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지속 호조 전망
- (중국) 주택건설부는 올 11월 안으로 서민주택 1000만호 공사가 모두 착공 하도록 요구
- (미국) 현대·기아차 현지생산 증가 및 Big3의 판매 호조로 자동차용 열연강판 수출은 호조가 예상되나, 건설 부문 수요는 주택시장 불안정 등으로 위축될 전망
- (인도) 자동차, 가전시장 성장, 인프라 및 상업용 부동산 건설 투자 증가로 호조 전망

마.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대폭 증가)

- 유가 상승에 따른 제품 단가 상승, 신흥국발 수요 증대, 일본 정유소 및 석화 제조사들의 조업 애로에 따른 반사효과 등으로 높은 증가세 시현 전망

- (석유제품) 신흥국 수요 증가 및 자체 공급 여력 부족, 일본의 공급 애로가 맞물려 높은 증가세 지속 전망
- (석유화학) 중국, 중동 등지의 현지 석유화학 공장 신설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바. 무선통신기기 (소폭 증가)

-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상승 속에 하반기 다양한 신제품 출시, 일본 시장 공략 본격화가 호재이나 중국 내 현지생산 확대,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토종 로컬 브랜드 강세 등은 불안요인
- 단, 선진국-신흥시장을 불문한 스마트폰 중심의 휴대폰 수요 증가세에 한국 기업이 연이은 신모델 출시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어 완만한 수출 증가세는 유지 가능 전망

자. 컴퓨터, 가전 (소폭 증가)

- 선진국의 소비 회복 지연으로 TV, 모니터 등 완제품 수요 회복도 더딘 가운데 해외 생산 비중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칠 전망
- 반면, 신흥시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의 꾸준한 상승으로 일본산 등과 동급의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향후 시장 확대가 기대됨

차. 기계류 (대폭 증가)

- 선진국 제조업 회복세에 따른 기계 설비 투자 확대, 신흥국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건설 중장비 수요 증가,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정밀 기계 분야에서의 최근 강세에 힘입어 호조 예상
- 유로존 등지의 제조업 회복세가 소비시장 회복세로 이어질 경우 폭발적인 수출 증가 기대

2010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BR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Check it~! 2011년 해외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2011.1
11-002	한-미 FTA 발효에 대한 美 바이어, 현지 진출 한국기업 및 투자가 반응 조사	2011.1
11-003	남부 수단 독립 진전 현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11.2
11-004	美 바이어가 뽑은 한-미 FTA 10대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2011.2
11-005	월드컵 특수, 카타르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동향	2011.3
11-006	위기의 리비아, 대체시장을 잡아라	2011.3
11-007	일본 · 인도 CEPA체결의 파급효과와 현지반응	2011.3
11-008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시장 트렌드 1편(멕시코, 브라질편)	2011.3
11-009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시장 트렌드 2편(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편)	2011.3
11-010	동 · 서남아 주요국의 노무여건 변화와 진출기업의 대응 방향	2011.4
11-011	한-페루 FTA 수출유망상품 및 진출방안	2011.3
11-012	일본 대지진 발생 한달 -일본 산업계 복구현황과 대일 수출입 영향-	2011.4
11-013	우리기업의 對인도 투자 트렌드 변화	2011.4
11-014	요르단 물 부족 사태, 정부대책 및 우리 기업 참여 방안	2011.4
11-015	히트상품을 통해 본 일본 소비시장 동향	2011.4
11-016	베트남 유통시장 현황과 진출전략	2011.4
11-017	한-EU FTA로 날개 달 중소기업 50大 수출유망상품	2011.5
11-018	미국 가상상품 시장, 이제 시작이다	2011.5
11-019	키워드로 본 2011년 글로벌 소비트렌드	2011.5
11-020	민주화 사태 이후, 중동 바이어가 전망하는 新 중동 시장	2011.5
11-021	아프리카 표준인증제도 현황 및 의미	2011.5
11-022	일본 지진 이후 식품시장 현황	2011.5
11-023	MENA 사태 이후 150일, 시장 변화와 전망	2011.6
11-024	요르단 전력산업 현황 및 우리 기업(정부) 진출 전략	2011.6
11-025	인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투자진출비용변화	2011.6

□ GIR (Global Issu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1 전망	2011.1
11-002	Post 무바라크 이집트 경제동향 및 전망	2011.2
11-003	한미 FTA에 따른 美 정부조달시장 진출 기대효과 전망	2011.2
11-004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기업의 대응사례	2011.4
11-005	2011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과 시사점	2011.4
11-006	남유럽 재정위기 1년, 현재 유럽은?	2011.5
11-007	팍스 시니카, 한국의 기회와 위협	2011.5

□ KEB (KOTRA Executive Brief)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2011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1
11-002	이집트 反정부 시위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1.1
11-003	해외바이어들이 전망하는 최근 이집트사태가 각국 경제 및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1.2
11-004	이집트사태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내역	2011.2
11-005	이집트 사태가 중동과 우리기업에게 미친 영향	2011.2
11-006	중동 북아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영향과 향후전망	2011.3
11-007	일본 지진사태가 주요국의 산업에 미친 영향	2011.3
11-008	2011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3
11-009	Post 중동민주화, 중동진출 새 활로 된다	2011.4
11-010	시리아 민주화 사태에 따른 우리기업의 유의사항	2011.4
11-011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이전 현황조사	2011.6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의 동향 및 전망	2011.3
11-002	세수(稅收)로 보는 2011 중국경제	2011.3
11-003	중국 고속철도 시대와 新소비지도	2011.3
11-004	中國 소비, Code로 잡는다	2011.5
11-005	中, 위안화 대폭 평가절상 가능성은?	2011.5
11-006	ECFA 발효 및 후속협상 영향	2011.6

□ 외국인투자정책센터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한-EU FTA 발효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2011.1
11-002	일본 『아시아 거점화 추진전략』 조사 및 시사점 분석	2011.5
11-003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2011.6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2011 지역별 진출전략	2011.1
11-002	MDB를 통한 해외 정보통신시장 진출전략	2011.1
11-003	스마트 TV 플랫폼 및 콘텐츠의 해외진출 방안	2011.1
11-004	SW 글로벌 마켓 클릭	2011.1
11-005	외국인투자기업, 한국과 通하다 - 대표 외국인투자 성공사례	2011.2
11-006	중국의 성시별 해외투자정책 연구	2011.3
11-007	중국의 금융지도	2011.3
11-008	주력품목별 수출시장 전망 및 확대 방안	2011.2
11-009	2010년 해외 고급인력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2011.3
11-010	필리핀 노동법 핵심번역본	2011.3
11-011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11.3
11-012	GUIDE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2011.3
11-013	Partnering for the Better Future - 30 Success Stori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2011.3
11-014	KOTRA 공동물류센터의 중장기 발전 방안	2011.3
11-015	세계 이터닝 전략지도	2011.4
11-016	그린리포트(Vol 11. 2011 Spring)	2011.4
11-017	주요 7개국 M&A 동향 조사	2011.4
11-018	韓國投資指南与企業經營信息 (한국 투자가이드 및 기업경영정보)	2011.5
11-019	300개 외투기업 주요경영지표 분석	2011.5
11-020	국내주요기관의 해외네트워크 2011	2011.5
11-021	'10년 해외주요국 투자동향	2011.5
11-022	韓國投資ガイドおよび企業經營情報 (한국투자가이드 및 기업경영정보)	2011.5
11-023	외국인직접투자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계성과 국제투자정책	2011.5
11-024	브라질 투자실무가이드	2011.6
11-025	SEOUL FOOD 2011 결과보고서	2011.6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2011 KOTRA 글로벌마켓 포럼	2011.1
11-002	2011 친디아 포럼	2011.1
11-003	글로벌 SW진출전략 워크샵	2011.1
11-004	2011 KOTRA 해외 공공조달 포럼	2011.1
11-005	2011 아프리카 포럼	2011.1
11-006	한-EU/한-미 FTA 기회와 도전 설명회	2011.1
11-007	2011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포럼	2011.1
11-008	Dow Chemical Global Alliance Project Series	2011.1
11-009	Global IT Channel Vision 2011 (대형 IT유통사 초청 구매전략 설명회)	2011.2
11-010	글로벌 인재유치 및 활용전략 세미나	2011.2
11-011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긴급점검 설명회	2011.3
11-012	2011 글로벌 공공병원 기자재 조달플라자	2011.4
11-013	브라질 월드컵 프로젝트 설명회	2011.4
11-014	러시아 사하공화국 대통령 경제사절단 설명회	2011.4
11-015	2011 춘계 글로벌 파워텍 연계 세미나	2011.5
11-016	해외투자전략심포지움	2011.5
11-017	중국 신흥 유통기업 초청 구매전략 설명회	2011.5
11-018	제 1회 아프리카 비즈니스 트렌드 포럼	2011.6
11-019	한-대만 산업자원 협력 포럼	2011.6

Kotra Executive Brief 11-012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1 하반기 수출전망

발 행 인 | 홍 석 우
편 집 인 | 곽 동 운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1년 6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